

여명

2003년 겨울호 (통권 제9호)

• 발행처: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 발행인: 도 성 숙 • 편집인: 이 지 영
• 전화 (063) 224-5673 • FAX (063) 224-6896 •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579-5 • E-mail: careym@hanmail.net

여명가파의 3대목표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가족기능의 회복
- 노인복지 정책 발전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우애서비스,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응집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상담 · 신고 전화 224-5673 여명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

퇴행성 관절염

김인상 소장(전주남강병원 관절센터)



찬바람이 불면 무릎이 시리고 쭈서 통증으로 인해 고생 하시지만 시원스럽게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관절염이란 관절 염증을 말하는 것 (염증이란 관절이 붓고 아픈 것을 총칭해 말한다)

뼈와 뼈들이 맞닿아서 움직이는 관절은 매끄러운 연골로 덮여 있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 관절 속에서 있는 관절 액을 통해 영양을 공급 받으며 신경이 없어 이상이 있어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관절염 때 아픈 것은 관절이 붓거나 주위 조직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증상]

처음 증상은 무릎통증이다. 이후는 걷기 위해 일어설 때 아프고 걸을 때는 오히려 아프지 않는다.

많이 걸으면 아프기 시작하고 층계를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며 운동을 하면 더 아파진다. 더 진행되면

아파서 걷기가 싫어지고 층계 오르내리기가 힘들며 아주 심해지면 걷지 않을 때도 아프고 밤에도

아파서 잠을 못 이루다 결국에는 걸을 수도 없게 된다.

[치료]

치료목적은 아프지 않게 하면서 무릎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있다. 유의해야할 사항은 한번 퇴행성 변화, 즉 노화가 시작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며, 노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아픈 것을 참고 지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치료를 하면 통증이 없어졌다가 무릎을 하면 다시 아플 수 있으며, 증상은 병 진행정도에 비례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고 통증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

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는 법과 수술을 하는 법으로 크게 나뉘며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은 대중요법, 물리치료,

운동치료, 약물치료가 있다.

대중요법은 무릎에 무리를 주면 관절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관절을 편하게 해주되 적당한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에는 온열치료와 한냉치료가 있으며 온열치료는 찜질 적외선 초음파 등을 이용해 통증을 감소시키며 강직된 관절을 풀어준다. 한냉치료는 얼음이나 냉습포 등을 사용해 관절 염증을 감소시켜 기능을 향상 시킨다. 대개 냉열요법은 통증이 급성이거나 열이 날 때 시행하며 온열요법은 만성 일때 시행한다.

운동치료는 점진적으로 복잡한 운동으로 진행한다. 운동량을 환자 증상과 관절염 정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운동을 한 후 통증이 두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관절운동 범위감소, 관절이 붓는 증상 등이 발생하면 운동량을 줄여야 한다.

가장 흔한 치료방법으로 약물요법으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줄이거나 늘려 사용한다. 퇴행성관절염 환자 중 90%이상이 대중요법, 물리치료, 약물요법만으로도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다. 약물요법은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 최근 연골재생 촉진제가 개발되고 있다.

[수술]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해 관절면이나 연골판을 매끄럽게 해 주기도 하는 관절세척술, 연골재생을 도모하는 연골성형술(미세천공술)과 자가골 연골이식 수술, 뼈 모양을 올바르게 해주는 절골술, 손상된 연골의 전체를 떼어내고 수술하는 슬관절 전치환 수술, 연골의 일부만 떼어내고 수술하는 슬관절 부분치환수술, 이 수술들은 슬관절의 운동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동통을 없애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관절염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법으로 인공연골을 부착하는 것이다. 또 부분 인공슬관절 치환 수술(슬관절 부분치환술)이 있다. 이것은 무릎관절에 작은 피부 절개 후 관절의 일부만을 시술하는 수술이다.

2003년 겨울호 (총권 제9호)

여는 글.....	2
퇴행성 관절염 - 전주남강병원 관절센터 김인상 소장	
목 차.....	3
가정봉사원 수기.....	4
봉사자 / 전주풍남중학교 3년 진영준	
봉사의 삶.....	5
실습생 / 전주대학교 3년 윤숙자	
어르신 초청 짜장면 먹는날 이모저모.....	6~7
하반기 활동사항.....	8~11
소식 및 동정.....	12~13
2003 세입 · 세출 현황.....	14
도움의 손길 - 가족소개.....	15
사랑의 글.....	165
재가어르신의 감사편지	



표지설명
어르신 초청 짜장면 먹는날 행사중 한장면

자원봉사의 기쁨

진영준

풍남중학교 3년



방청소가 끝나는 동시에
나는 우선 수세미로 통로에 묻어
굳어버린 이물질들을 문지르고 걸레로
오염물을 닦았다.
이젠 웬만큼 냄새에도 적응해
가는 것만 같다.
냄새에 적응하니 집중도 잘되고
시간도 빨리 갔다.
나는 이일이
정말 의미없고 하찮은 일인줄만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남에게
자원봉사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어느때에도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꼈다.

2003년도 여명 중고등부 여름캠프는 참 고생한 캠프였다.

캠프하면 신나고 재밌고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름부터 쓸쓸하게 봉사캠프라니.. 그러나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이 캠프는 나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집이 쓰레기 더미와도 같은 한 대상자 집을 방문해서 대청소를 할 때의 일이다.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고 또 다르게 보면 보람될 것 같은 마음이 오가며 벌써 대상자 집에 도착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온갖 이상한 냄새들로 인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할 정도였다. '열심히 청소해야지' 라는 결심은 이미 내 마음 밖에 있었다. 우선 장갑을 끼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집어 들었다. 그 촉각이란 하늘이 무너져도 만들어 낼 수 없는 느낌이었다. 방을 대충 정리하고 걸레를 가지고 가려는데 내 신발에 이 물질이 묻었다. 순간 난 당황했다.

'만약 이게 그거라면.....' 그건 배설물이었다.

우리 일행은 당황한 나를 위로하며 하던 일을 재촉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방을 청소하는 동안에 나는 통로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점점 악취가 코를 찌르며 내 몸에 스며드는 촉감들이란..... 이루 표현할 길 없었다.

방 청소가 끝나는 동시에 나는 우선 수세미로 이미 묻어 굳어버린 이 물질을 문지르고 걸레로 오염물들을 닦았다. 이젠 웬만큼 냄새에도 적응해 가는 것 같았다. 냄새에 적응하니 집중도 잘되고 시간도 빨리 갔다. 얼마나 했을까? 내가 통로를 마무리지었을 때 모든 청소가 끝나는 동시에 내 이마에 땀방울이 흘렀다. 끝까지 마무리를 다하고 우리 일행은 사진한 방을 찍었다.

그때의 모습들이란... 이루 형언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표정들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버스를 탔다. 나는 버스를 탄 후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일이 정말 의미 없고 하찮은 일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남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에도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꼈다. 다음에는 좀더 성숙된 마음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리라고 다짐 해 보았다.



늦게 배운 도둑질



윤 숙 자

실습생(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제 나이 50....

다 늦게 공부한다고 전주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 공부를 접한지 어언 3년이 되어 실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유가 있으니까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다 늦게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저의 못다 한 향학열도 있겠지만 그보다 뜻한바가 있어서였습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 팔남매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혼기가 차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도 유복한 가정으로 하게 되어 아무 어려움을 모르고 신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부족함도 모르고 살던 중 남편의 빚 보증으로 인하여 사업까지 파산에 이르러 우리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웠고 또 싫었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였구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충격을 딛고 삶을 다시금 추스려야 했습니다.

그 후 이제야 못사는 사람들은 왜 못사는지 왜 그들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지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저도 얼마든지 못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가난은 분명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는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비로소 나 자신이 얼마나 오만과 교만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깨달아 '앞으로는 저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겠노라' 고 다짐하며 처음으로 복지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여간 많은 댓가를 지불하고 얻은 깨달음을 통하여 실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바른 복지 사회 구현에 쓰이는 한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가난은 분명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는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비로소 나 자신이 얼마나

오만과 교만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깨달아

'앞으로는 저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겠노라'

고 다짐하며 처음으로 복지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짜장면 먹는 날 이모저모



10월 26일 어르신들을 본 센터에 초청하여 E-마트 전주 지점 늘푸른 동우회 협찬으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120여분의 어르신들과 50 여분의 봉사자들, 여러 내빈들이 함께 어르신들에게 옛 추억을 찾아드리고 삶을 보듬어 드리는 아름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여생을 격려하고 활력소를 불어넣어 드리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넉넉히 섬기고 아낌없이 수고해 주신 E-마트 전주지점 늘푸른 동우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정성이 하나되어 우리 어르신들의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행사준비

아침 일찍부터 늘푸른 동우회 분들이 어르신들을 맞이할 설렘으로 분주했습니다.

짜장면에 면을 직접 뽑고 야채와 재료들을 맛있게 볶아 손님 대접 준비를 풍성히 마쳤습니다. 또 많은 봉사자들이 음향과 무대장식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뒤로하시고 음향으로 행사에 도움을 주신 파티&별론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사시작

먼저 1부에는 남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인상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직원과 봉사자들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2부 환영사와 내빈 소개를 마치고 드디어 늘푸른 동우회의 즉석요리가 선 보였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봉사자들의 손길로 어르신들이 즉석요리를 맘껏 드실 수 있었습니다. 따스함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한 끼 식사'의 테마가 어르신들의 옛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드렸답니다.



어울림 한마당

든든히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많은 축하공연과 장기자랑을 하는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북대 풍물패 덩덕쿵의 공연과 어린 친구들의 축하공연, 청년들의 화려한 몸 동작의 댄스 등이 축제를 빛내 주었습니다.

특히 남강병원 유성진 운동 치료사 선생님의 시범교육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었고 꽃봉오리 예술단의 공연 또한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뛰어난 춤, 노래 솜씨를 자랑하는 행복한 어르신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소원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봉사자 활동

이 날에도 역시 어르신들을 향한 봉사자들의 열정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힘겨운 삶에 사랑을 실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더욱 이웃을 위한 성숙한 봉사 마인드를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자 서비스 지원 활동



자원봉사자 단합대회(7월 17일, 9월 26일)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돕고 꾸준히 어르신들과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7월 17일 무주 향적봉 등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끈기와 인내를 배워 봉사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9월 26일 청남대 방문의 오가는 시간 속에 한마음을 다지는 보람 있는 일정을 보냈습니다. 함께 참여 해 주신 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운동치료 실기 교육 수료식(8월 3일)

남강병원 운동 치료사 유성진 선생님과 6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실시했던 운동치료 실기 교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교육에 동참 해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은 봉사자 분들과 많은 시간 어르신들을 가슴에 품고 수고 해주신 유성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남강병원 관절센터 김인상 소장님께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해주셔서 더욱 봉사 지식을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센터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집 대청소 및 도배(8월 13일, 9월 3일, 9월 27일)

여명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청결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힘껏 애쓰고 왔습니다. 8월 13일에는 권춘만님 댁을, 9월 27일에는 김업비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청소가 너무 요구되었던 권춘만님 댁의 청소는 긴 시간과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곳곳이 감당하는 학생들이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9월 27일 김업비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는 함께 노래하고 안마도 해 드리는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외로워하시는 할머니께 기쁨을 선물하고 돌아온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9월 3일에는 완산자활 후견기관과 함께 박복순 할머니 댁 도배를 하였습니다. EBS 효도우미와 전북도립장애인 복지관의 지원으로 무너진 집을 새롭게 짓는 귀한 일에 저희 센터도 도배로 함께 힘을 실어 드렸습니다. 더욱 편안한 보금자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그룹 소풍(7월, 10월)

어르신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밝은 노후 생활을 지원 해 드리기 위해 두 번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7월에는 덕진공원과 동물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리를 태워드리느라 봉사자들이 땀을 흘리며 기쁨을 드리기에 노력하였고 오랜만에 맘껏 사진을 찍는 천진난만한 어르신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0월에는 화심온천 에서 온천욕을 마친후 원조 화심순두부(대표 권영선) 사장님의 도움으로 맛있는 순두부 백반도 먹고 고산 수목원과 대아리 저수지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잠깐의 일정에도 너무 만족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욱 어르신들의 일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전과 식사준비, 동행 해 주신 많은 봉사자 분들과 여러 부분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물품지원(추석, 성탄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근화제약 직원일동이 변함없이 어르신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 6분의 어르신들에게 후원금 50,000만원과 영양제를 전달하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잊지 않으시고 저희 어르신들을 찾아주신 직원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본 센터에서는 전 대상자에게 봉 유통의 후원과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로 밀반찬 및 조림류 반찬 5가지를 지원하였습니다. 풍성한 반찬이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뜻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 쌀 10kg과 장애인 도시락, 밀반찬 대상자들에게는 밀반찬과 라면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추석에는 어르신들에게 생활 지원금 50,000만원과 4분기 생활 지원금으로 30,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은 정성들이 잘 전달되어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어 안정된 삶을 채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상자 서비스 지원 활동



운영위원 간담회(9월 23일)

행병진 어르신외 4분의 운영위원님들이 3분기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돌아보며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초청 한마당 잔치(10월 25일)

『따뜻함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한끼 식사』라는 테마로 E-마트 전주지점 늘푸른 동우회 협찬으로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짜장면, 탕수육을 대접했습니다.

120분의 어르신, 50여분의 봉사자, 또한 사랑으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신명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더욱 감동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 행사에 뜨거운 사랑으로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인이동차량 인수식(11월 20일)

노인이동차량

찾아가는 복지일환으로 지원되는 “노인이동차량”을 지원받아 서울 과천에서 이루어진 차량전달식에 참석하여 지원차량을 인수 건인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 시켜드리는데 유용하게 사용 될 것입니다.



직원 연수 및 선진 기관 방문(12월 15-16일)

한 해 동안 시행되었던 사업 평가와 향후 서비스 계획을 위한 직원 연수가 1박2일 동안 있었습니다. 대상자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계속해서 돕고 직원들의 활발한 업무 진행 방안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장성에 위치한 프란체스코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중증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가정봉사원 파견 센터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집의 사업과 시설을 소개받으며 노인들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사업에 감동하였습니다. 배려해주신 프란체스코의 집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생신 축하

김복순 어르신 외 41분의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 해 드렸습니다. 홀로 된 힘겨운 삶이 저희들의 사랑으로 따뜻하다며 두 손을 꼭 잡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 합니다.

더욱 한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정성스레 보살피 드리기를 마음속 깊이 약속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세요!



소식 및 동정

7
月

- * 11일과 25일에 노인의 날 연합 행사관련으로 한재협 전북지회 모임에 우강숙 원장님이 참석 함.
- * 17일에 자원봉사자 단합대회가 무주 덕유산 향적봉에서 등반대회로 있었음.
-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남강병원 유성진 운동치료사 선생님과 운동치료 교육이 실시 됨.
- *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본 센터에서 직장체험 청소년 연수에 2명이 참여 함.
- * 7월 한 달 동안 전주대 2명, 원광보건대 2명이 본 센터에서 실습지도를 받음.
- * 어르신 소그룹 나들이가 덕진공원과 동물원에서 진행 됨.
- * 변광식(금암동), 최선의(완산동)님이 장애인 도시락 배달 새로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 반갑습니다!
- * 평화동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도시락 대상자 김윤경님이 시설로 입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 생신을 축하합니다
최점례, 박귀용, 양귀순, 노학주, 이교순, 강귀례, 김창순

8
月

- * 4일에 운동치료 실기교육 수료식과 이론교육이 있었음.
- * 8일에 7월에 이루어졌던 실습지도 평가회가 있었음. 한 달 동안 수고한 실습생들에게 감사하며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 * 12-13일 후원처 13곳에 간식을 전달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달 함.
- * 13일에 여명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권춘만 남덕 대청소를 다녀옴.
- * 14일에 도청 가정복지과에서 대상자관리 현황과 유급봉사관리 및 전체운영에 대한 감사를 위해 방문 함.
- * 14-16일은 직원들 휴가가 있었음. 재충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 * 26일에는 본 센터에서 방문간호팀 몸사랑 마음사랑 정기모임이 있었음.
- * 29일에는 노인의 날 연합행사 관련 한재협 전북지회 모임이 본 센터에서 이루어짐.
- *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옥순, 박옥희, 이점순

9
月

- * 3일에 완산 자활후견기관과 연결하여 박복순 할머니 댁 도배를 실시함.
- * 6일에 근화제약 직원일동이 센터 대상자 6분을 방문하여 후원금과 영양제를 전달 함.
- * 8일에 전 대상자 밀반찬 전달과 후원금을 지급 함.
- * 9일에 추석을 맞아 장애인 도시락 대상자에게 밀반찬과 라면을 전달 함.
- * 18-19일에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있었던 유급봉사자 보수교육에 4명이 참석 함.
- * 23일에 3분기 운영위원회가 있었음.
- * 27일에 여명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김업비 할머니 댁 대청소를 다녀왔고, 곰두리 봉사대 도움으로 조동만 어르신을 임종을 앞둔 어머니와 4년만의 만남을 도와 드림.
- * 생신을 축하합니다
최삼례, 이유봉, 김전례, 정금안, 조점녀, 정성림, 조정례

10
月

- *6-10일에 화심으로 소그룹 온천 나들이를 다녀옴.
- *8-10일 강원도에서 있었던 선진기관 방문 및 직무연수에 이지영 사회복지사가 참석함.
- *11일 여명교회 청년부 에서 장애인 가정방문을 동행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 함.
- *25일 E-마트 전주지점 늘푸른 동우회 협찬으로 어르신 초청 짜장면 먹는 날 행사가 있었음.
- *생신을 축하합니다
김복순, 김옥례, 김쾌례, 김기두, 김순이, 최가안, 김삼례, 유삼순

11
月

- *11-12일에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있었던 한재협 주최 하반기 실무자 전문화교육에 노인숙 사무국장이 참석함.
- *20일 찾아가는 복지일환으로 지원되는 노인이동차량 전달식에 참석하여 인수함.
- *21일 전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에 3인 참석 함.
- *25일 방문간호팀 몸사랑 마음사랑 정기모임을 갖음.
- *27일 하반기 시 지도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 *LG복지재단 지원으로 최원익님 맥 지봉공사와 부엌보수, 도배 등을 실시하였고 김공술 봉사자님이 보일러 공사를 해 주심.
- *전라북도 공동모금회 2004년 지원 사업으로 '함께해요 터치 터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임.
- *2003년도 기획사업으로 지원된 500만원은 노인이동차량지원으로 이중지원 되어 반납 함.
- *생신을 축하합니다
박길수, 김업비, 형병진, 오은순, 김점순, 최병호

12
月

- *5일 직원연수 및 선진기관 방문이 있었음.
- *16일 직원 및 봉사자들이 모악산으로 등반을 다녀옴.
- *20일 그 동안 정들었던 최병호 할머니가 사망 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3일 전 대상자 성탄절 물품지원과 LG복지재단지원 생필품을 15명에게 전달 함.
- *생신 축하합니다
이임순, 신점녀, 김재성, 임죽간, 이삼녀, 윤타관



2003년도 수입 · 지출 총괄표

〈기간 1/1~12/31〉

총 계	141,015,177	총 계	141,015,177
		잔 액	5,041,656
수 입 계	141,015,177	지 출 계	135,973,521
보 조 금	90,800,000	사 무 비	123,214,616
도 비	36,320,000	인건비	108,306,278
국 비	27,240,000	업추비	1,668,110
지방비	27,240,000	운영비	13,240,228
자 부 담	47,000,000	재 산 조 성 비	3,605,485
기 타 수 입 금	2,871,435	사 업 비	9,153,420
전 년 도 이 월	343,742	봉사자관리	1,500,260
		서비스지원	1,159,520
		방문간호	1,571,890
		기타사업	3,589,240
		홍보비	1,332,510

2003년도 후원금 내역(기간 1/1 - 12/31)

총 계	24,098,946	총 계	24,098,946
		잔 액	12,093,026
수 입 계	24,098,946	지 출 계	12,005,920
후 원 금	10,149,807	생신축하	566,600
집 고 치 기	1,342,000	후원금지급	8,260,000
전년도 이월	12,607,139	물품지원	310,400
		절기 및 행사지원	1,456,920
		개발관리비	70,000
		집고치기	1,342,000

2003년도 특별회계(장애인도시락1/1-12/31)

총 계	22,913,137	총 계	22,913,137
		잔 액	-
수 입 계	22,913,137	지 출 계	22,913,137
보 조 금	22,908,000	주 식 비	7,066,000
잡 수 입	5,137	부 식 비	15,842,000
		잡 지 출	5,137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가족

● 후원 가족 (2003. 7 - 2003. 12)

...물자후원

강원봉, 고정배, 고찬배, 고희석, 권순복, 김동희, 김정숙, 김소연, 김창주, 김재필, 김현석, 노경철, 노영숙, 노인숙, 문영선, 박노진, 박은영, 박봉기, 소점례, 신순미, 양수진, 양유순, 오동철, 유 미, 유정자, 이금자, 이석길, 이석봉, 송종덕, 이석연, 이세라, 이점례, 이점순, 이정우, 임현주, 정숙희, 조옥선, 지은정, 진오범, 설재룡, 최경애, 최병환, 최봉남, 최정애, 형남만, 행복희, 여명교회제2청년부, (유)전주마트, 이마트전주점

...물품후원

강인농장, 김종락, 손인섭, 전중세, 일한의료기
승현상사, 전주마트 제과점, 동일농장(송순모), 한국식품, 하나로떡집, 봉유통,
삼천동농수산시장(과일,수산), 칠칠수산(송천동), (주)하선정종합식품(전북총판),
송천동건어물시장(8번, 70번, 90번), 효자식품, 한빛농산, 하림전주대리점, 진미식품, (합)두원종합식품
동원식품(중화산동), 원조화심순두부(소그룹 나들이 후원), 풍년제과(중화산동), 대림상사, 국민소금,
삼남양금, 대주상사, 형제유통(시몬식품)

...어르신 초청 피자먹는 날 행사에 도움 주신 분들

낙원떡집, 롯데리아 전주마트점, 하림전주대리점, 오복떡집, 만나떡집
민속떡방앗간, 삼남양금, O.K. 식품, 송선냉동, 동일농장, 가나화원
전주 하나로 클럽, E-Mart 전주점, 상록수 화훼농장, 용진목, 효자두부
삼천시장(2번 · 85번), 은교리 배농장, 대성유통, 대주상사, 롯데서부대리점
e@office이춘상, 롯데리아효자점(서부시장입구)고찬배, 김미경, 소미자, 소점례, 소효례, 이금자, 임영희,
강철수 · 양묘순(녹원정육), 이미경, 장한나, 정영란, 서명례

...지원봉사자

<단 체> 여명교회 남선교회, 제1·2 여선교회, 제1·2 여호수아 공동체, 바울공동체
손수례 자원봉사회, 은하수유치원, 전주대 신바람풍물패
<개 인> 조옥경, 이춘상, 이병재, 황규환, 유준원, 이경순, 김석환, 서기성, 우영동
신상희, 이진아, 허선화, 이지현, 정정희, 이보라, 김수학

● 자원봉사자 가족

김성희, 김옥자, 김현아, 노승주, 박지숙, 백경미, 박은영, 양인순, 윤미래, 이미경, 이병재, 이수영, 임은희,
장한나, 정영란, 조윤주, 주미애, 최명순, 최 현, 김기현, 김길순, 김요셉, 김은경, 김종문, 김종수, 김화영,
노영숙, 노정숙, 라병수, 박래승, 서명례, 양기순, 양유순, 양은인, 양효남, 우영동, 이소영, 정숙희, 조계석,
천홍지, 최영순, 여명교회중·고등부, 이미숙, 유준원, 김미예, 김윤일, 김남주, 정순경, 이보라, 윤석연, 홍수
정, 서기성, 전라북도 곰두리 봉사대

※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혹 기록상 착오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우 체 국 400010-01-011708

국민은행 501-01-0601-523
농 협 658-01-002798

제가 원장님께

여명 복지센터 원장님 직원님 봉사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 3월 9일에 여명재가에서



제가 원장님께

여명 복지센터 원장님, 직원님,
봉사원님 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명재가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2002년 3월 9일부터 교회에
나가 4월 10일부터 밀반찬을 받았습니다. 어언 1년 9개월이란
지난 세월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명에서 어르신 일터를 마련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들과 함께 재미있게 보내며 용돈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원장님, 직원님, 봉사원님 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자라도 한 봉 사시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모 집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가정봉사원** 말벗, 세탁, 설거지, 청소, 식사보조, 목욕, 병원동행, 행정업무대행, 시장보기, 책·신문읽어 주기 등
- 차량봉사자** 장애인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 어르신 병원동행, 방문간호서비스, 후원물품운반 등
- 후원자 (현금·현물)** 식품류, 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걸연후원
- 기 타** 방문간호사, 의료봉사, 이·미용, 주택보수, 방역·월동준비(보일러) 등